

아브라함의 죽음

이삭이 리브가를 만나 결혼할 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백사십 세. 아브라함은 이삭의 결혼 이후 삼십오 년을 더 살았고 그 사이에 후처 그두라를 만나 여섯 자녀를 낳았다. 아브라함은 죽기 전에 자신의 유산을 정리한다. 우선 자기의 모든 소유를 이삭에게 주었다. 그두라의 자식들에게도 재산을 나누어주고 이삭을 떠나 동방으로 떠나게 했다. 사라가 낳은 이삭만이 가나안에 머물게 한 것이다.

아브라함은 백칠십오 세에 죽었다. 칠십오 세에 하란을 떠난 것을 기준으로 할 때 정확히 백년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다가 가나안에서 죽었다.

아브라함의 향년이 백칠십오 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 창세기 25:7-8

부르심을 따라 고향을 떠나 지시하실 땅으로 향했다. 제단을 쌓고 자신을 부르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다. 가나안 사람들이 두려워 아내를 누이라 속이기도 했고 기다림에 지쳐 여종에게 아들을 낳기도 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계속해서 찾아주셨고 그 때마다 확신과 약속을 주셨다. 노년의 아브라함에게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다. 아들 이삭과 이삭의 후손들이 가나안 땅을 소유할 것이라는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 있었다.

처음 아브라함이 보여준 믿음의 결단이 '들음'에서 시작되었다면 노년에 보여준 믿음의 행동들은 '경험'에서 나오는 것이었다.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지 몸소 겪으면서 그의 믿음은 더욱 단단해졌다. 그래서 이삭을 향해 칼을 휘두를 수 있었고 종을 보내면서 여호와께서 앞서 가시며 준비하실 것이라 담담하면서도 확신에 찬 말을 할 수 있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헛 사람에게서 값을 주고 산 막벨라 굴, 사라 곁에 묻혔다.

이스마엘의 마지막 등장

아브라함의 장례는 이삭과 이스마엘이 함께 치루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가나안을 차지할 사람은 오직 이삭 뿐이었지만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다. 이스마엘은 이삭이 젓 펄 무렵 어머니 하갈과 함께 쫓겨났다. 아브라함이 백 세에 이삭을 낳았고 이제 백칠십오 세에 죽었으니 대략 칠십 년을 떨어져 살았던 아버지의 죽음이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헛 족속 소할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 창세기 25:9

아브라함의 장례 이후 본문은 이스마엘의 죽음과 족보로 이어진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하갈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에 대한 마지막 기록이다. 이스마엘은 백삼십칠 세에 죽었다.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촌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는 열두 지도자들이었더라 / 창세기 25:16

광야로 내몰린 이스마엘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돌보셨다. 이스마엘은 죽지 않고 살아남았으며 많은 자녀를 낳았고 열두 지도자가 나왔다. 이삭이 태어나기 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 그대로였다.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네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열두 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 창세기 17:20

후처에게 낳은 다른 자식들은 재산을 미리 주어 이사를 떠나게 했다. 아브라함이 염려했던 이스마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복을 받았고 후손들도 모두 잘 되었다. 아브라함이 남긴 모든 복잡한 관계는 아브라함의 죽음과 함께 깨끗이 정리됐다. 이제 남은 것은 이사 뿐이다.

아브라함 세대에 일어났던 모든 복잡한 상황들이 일단락되고 이제부터 이사와 야곱,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된다.

하나님이 만든 사람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믿음의 영웅이 아니었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그가 얼마나 영웅적이고 뛰어난 믿음을 소유했는가 아니다. 그를 불러내시고, 동행하시며, 쓰러질 때마다 찾아오셔서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주목해야 한다. 무언가 대단한 믿음을 보여서, 후대에 남을 만한 업적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이 아니었다. 아브라함의 삶은 그가 행한 신앙 업적의 기록이 아니라 그로 하여금 망설임 없는, 한치의 의심도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하나님에 대한 기록이다.

우리의 형편이나 상태와 상관 없이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만들고, 우리를 세운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은 후회가 없고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멈춤이 없다.